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이익추정치 상향 등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30 종목을 선별하여 구성된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투자전략을 사용

- 이러한 투자전략을 통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인덱스를 충실히 추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덱스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9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 주식편입비: 60% 이상 (단,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3년 12월 02일)

- 클래스 A : 2011년 03월 25일
- 클래스 A-W : 2008년 04월 21일
- 클래스 C5 : 2012년 09월 18일

벤치마크 뉴블루칩30지수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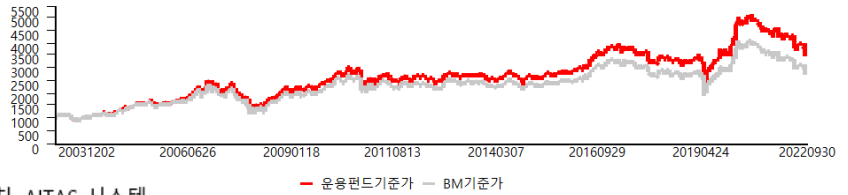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1.61%	-6.77%	-20.50%	-23.27%	-2.59%	6.43%	-4.89%	247.16%
클래스 A	-11.72%	-7.08%	-21.04%	-24.31%	-5.16%	2.26%	-11.05%	8.24%
클래스 A-W	-11.63%	-6.85%	-20.64%	-23.53%	-3.24%	5.38%	-6.46%	42.65%
클래스 C5	-11.72%	-7.08%	-21.04%	-24.31%	-5.16%	2.26%	-11.05%	14.36%
벤치마크	-11.72%	-6.80%	-20.81%	-25.09%	-6.59%	0.82%	-13.38%	172.6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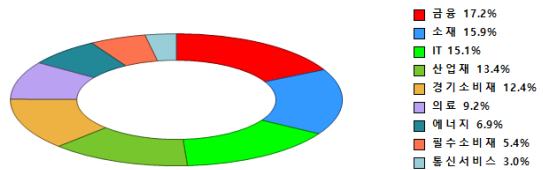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2년 09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2년 09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6.4	포스코케미칼	비금속광물	3.8
기아	운수장비	5.0	SK이노베이션	화학	3.8
삼성SDI	전기,전자	4.4	신한지주	금융업	3.7
현대차	운수장비	3.9	현대글로비스	운수창고	3.7
삼성물산	유통업	3.9	KT&G	미분류	3.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33% (판매 1%)
- 클래스 A-W : 총 연 0.33% (판매 0%)
- 클래스 C5 : 총 연 1.33%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2825%, 신탁 0.03%, 사무관리0.017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W: 납입금액의 0.17%
- 클래스 C, C2, C3, C4, C5: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KOSPI는 전월 대비 12.81% 하락한 2,155.49pt, KOSDAQ은 16.65% 하락한 672.65pt로 마감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럽 지정학적 위험, 중국 경기 부진, 원화약세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업종 중심으로 기업이익 예상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기계, 조선, 운수창고 등 경기민감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 통신서비스, 유통, 보험 업종 주가는 지수 하락 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에 이어 추가 약세를 보이며 1,430.55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WTI 기준 국제 유가 또한 79.91 달러로 전월 대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기관투자자는 각각 약 2.5조원 및 3,554억원을 순매도하였고 국내 개인 투자자는 약 2.7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0월 국내 증시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긴축 통화 정책과 유럽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상승분을 반납, 그 이전 주가지수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유럽, 중국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부담요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이익 하향 조정을 통해 최근 주식시장 조정 과정에서 개별 기업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공급망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이후 물가상승세 둔화 및 이에 따른 선진국의 긴축 강도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주요 수출 업종의 재고순환주기 상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정적인 상황이며 재고 소진의 기간이 하반기에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주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수 기회의 관점에서 경기방어주 보다는 경기민감업종의 턴어라운드에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